

공주민제(共株民制) – DCA(Distributed Citizen Assets)라는 이름의 뜻

반자반노 이상연

1. 왜 ‘공주민제(共株民制)’인가?

****공주민제(共株民制)****라는 말은 네 글자 각각에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共(함께 공)

“함께, 공동으로”라는 뜻입니다.

소수의 자본가나 국가 권력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소유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강조합니다.

株(그루 주, 주식의 ‘주’)

오늘날에는 ****주식(株式), 주주(株主)****의 ‘株’로 쓰입니다.

단순한 복지나 현금 분배가 아니라,

기업 지분·국가자산·데이터·AI 수익 등 ‘자본지분’ 자체를 시민이 가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자본가가 된다”는 말을 한 글자로 압축한 셈입니다.

民(백성 민)

국민, 시민, 주민을 두루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특정 계급(노동자, 자본가), 특정 조직(노동조합, 재벌, 정당)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 - ‘민(民)’을 주체로 세운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制(제도 제)

제도, 체제, 법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공주민제는 하나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소유·의결·책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정리하면, ****공주민제(共株民制)****는

“주식·지분(株)을 함께(共) 가진 시민(民)이

분산 소유·분산 의결·분산 책임을 통해

사회 전체를 운영하는 새로운 제도(制)”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 왜 영어 이름을 DCA(Distributed Citizen Assets)로 했는가?

공주민제는 한국어 개념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논의 속에서도 쓰일 수 있는 **보편적 이론**을 지향하기 때문에
영문 이름으로 ****DCA(Distributed Citizen Assets)****를 함께 사용합니다.

1.

Distributed - ‘공(共)’의 현대적 표현

‘Distributed’는 **분산된, 널리 나누어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자 ‘共(함께 공)’을 오늘날의 디지털·네트워크 사회에 맞게 옮긴 말입니다.
소수가 집중적으로 쥐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에게 폭넓게 분산된 자산 구조를 뜻합니다.

Citizen - ‘민(民)’의 주체성 강조

‘Citizen’은 국민·시민을 의미하며, 한자 ‘民’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국가는 하나의 법인에 불과하고,
실제 주체는 **시민 개개인**이라는 공주민제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노동조합·정당·기업 등 중간 조직보다,
****개별 시민(휴만, Humann)****을 기준 단위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Assets - ‘株’의 확장된 개념

한자 ‘株’는 주식·지분(equity)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나 공주민제가 말하는 자본은
기업 주식뿐 아니라,
국부펀드·공공 인프라·데이터·AI 수익 등
광범위한 자산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영어 A를 **Assets**로 두어
“시민이 나누어 갖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Distributed ↔ 共
Citizen ↔ 民
Assets ↔ 株(를 중심으로 한 자본·지분의 확장 개념)

으로 연결되며,

마지막 한자 **制(제)**는 영어에서 “DCA system / DCA regime”이라는 표현으로 보완됩니다.

3. 요약

“공주민제(共株民制)는

‘국민이 함께(共) 자본지분(株)을 가진 시민(民)의 제도(制)’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Distributed Citizen Assets, 약자로 DCA라고 부릅니다.

자본과 국가의 소유를 소수에게서 떼어내어,

모든 시민에게 분산된 지분과 배당, 의결권을 부여하는

노동 이후 사회의 새로운 자본·거버넌스 체제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2025.12.26.